

2018년 3월 18일 “찾아오신 예수님(46) 못 박히시다”(요 19:17-27)

<도입>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재판은 예수님 재판일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도신경을 통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고백합니다. 본문에서 심문의 결과는 19:16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 주니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십자가 죽음의 이야기를 요한은 7가지의 상징을 사용하여 전개합니다.

- 1) 십자가라는 상징
- 2) 두 죄수 가운데에 계심
- 3) 죄목패를 붙임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 4) 겉옷을 취하는 네 병사, 그리고 네 여인
- 5) 마리아와 사랑받는 제자
- 6) 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 7) 몸에서 흐르는 피와 물

이 7가지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 십자가

의도적으로 고통을 오래 겪도록 고안된 사형 제도입니다. 먼저 채찍으로 때립니다. 또한 십자가는 특히 수치를 더해 주려는 의도로 나무에 달기 전에 먼저 옷을 벗겼습니다. 예수님이 범죄자로 몰린 발단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주장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법대로 죽이면 예수 추종자들이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 때문에 로마법에 어기는 죄로 모함했습니다. 예수가 자신을 왕으로 주장한다고 하여 황제를 반역하는 자로 넘긴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반역죄로 인정하여 십자가 사형을 선고합니다.

예수님은 범죄자로 처형 당하셨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상징은 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죄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가 십자가에 죽을 만큼의 죄인인가에 대해서는 각자가 발견해야 할 문제입니다.

[2] 두 죄수 가운데 있는 예수님

예수님 옆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죄수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고 말합니다. 요한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데도 죄인 사이에 끼어 있는 이유는 죄악 된 세상과 죄인들 중심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죄짓는 편을 들어주려고도 아니고, 죄에 무력하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죄와 죄의 세력을 정면으로 대면하고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물 밖에서 구명줄을 던져서 나오게 하시지 않고 물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안고 나오십니다. 그래서 옆 강도에게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눅 23:43) 이 땅에서도 그들 사이에 함께 있고 죽어서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주님과 함께 있다'는 표현보다 더 특별한 말이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인과 죄의 세상의 정중앙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려는 우리들의 성향을 하나로 모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3] 죄패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카톨릭 교회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강조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INRI”라고 적힌 패가 있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의 약자입니다(20 절 세 언어로). 이 죄패를 붙인 빌라도의 의도는 조소입니다. 나사렛 촌 청년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란다! 그런데 이 조롱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통해 기다려왔던 왕, 메시아가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빌라도는 예수님이 왕이심을 온 땅에 선포한 셈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요? 백성을 위해 섬기고 죽으시는 왕, 참된 사랑의 통치자입니다. 그분의 백성은 죽으신 사랑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사랑의 법에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빌라도와 세상은 이런 왕을 조소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세상 왕과 같은 속성이 없는 분입니다. 왕 되심을 찬양할 때 그분의 사랑의 참 통치가 내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4] 겹옷을 취하는 네 병사, 그리고 네 여인

예수님의 겹옷은 당신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겹옷을 취한 병사가 넷인데, 4는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의 성경의 숫자입니다. 예수님 겹옷을 네 명이 취했다는 말은 당신 육체를 온 세상에 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귀한 육체를 세상은 죽였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진가를 모릅니다(요 1:10-11).

그런데 십자가 곁에 네 여인이 있었습니다(25 절). 이들은 십자가까지 쫓아가 예수님 편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에 의해 배척당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을 짜십니다. 그분 죽음이 사랑임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언덕에는 예수를 조소하고 죽이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희망은 이 네 여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곁에 머무르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새 세상(교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짜시는 세상의 시작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 권세에 팔려서 예수의 연약함과 죽음을 가치없게 여기는 우리는 제껴 두시고, 그분 사랑에 매료되어 사랑의 종되기를 원하는 연약한 자들을 통해 새로운 주님의 세상을 이미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세상에 동참하기를 권면합니다. 세상 조건을 낮게 하지는 않더라도 예수의 참 사랑의 종되기를 원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새로운 세상의 영적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나눔의 질문>

1.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이야기를 요한이 전개한 대로 살펴보고 그 과정마다 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네 가지만. 다음 시간에 남은 3 가지를 다룸).
2. 십자가 언덕에는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만 있지 않고 그분을 사랑하여 쫓은 소수의 연약한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증인으로 자격 없던 여인들의 증언으로 사도들도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19:18 까지 참고). 이 여인들이 십자가를 쫓은 것부터 시작하여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동기는 무엇일까요? 이들의 믿음과 용기에 비추어 나는 예수님과 어떤 통함과 교제가 있습니까?
3. 다음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많이 묵상하며 십자가와 만나는 개인적 사건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